

+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창한 날씨속에 기분좋은 한주 맞이하고 계시길 바라며,
님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 **2월 넷째주 공지 드립니다.**

새 단체 첫 공식 회합 - 2월 21일

요새들어 가장 많은 분들이 첫 회합에 함께하여, 감사속에 새로운 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한동안 참석 못했다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반갑게 인사 나누길 바랍니다. 항상 열려있음을 잊지 마세요!

뜨락회와의 관계

뜨락Plus가 뜨락회에서 독립하는 과정속에서 지난 약 한달간에 걸쳐 봉사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의견조율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각 그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나누기를 결정했으나 처음으로 주도적인 입장에서 뜨락회를 이끌어 가야하는 20대 후배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멋지게 잘 꾸려나갈것을 믿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응원하며, 이 과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에 기꺼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의 뜨락회가 활성화되고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사목 회장님과의 만남

지난 2월 20일 토요일, 뜨락회 회장 허소연 프란체스카와 함께 이인학 시몬 사목회장님을 뵙고, 뜨락Plus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사목회장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청년 단체에 대한 진심어린 지지와 관심을 표해 주셨습니다. 같은 뿌리(성당/뜨락회)의 가지수와 종류는 뿌리에 다양성을 주어 각 가지가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이에 적합한 두개의 가지로 그룹을 이어나감은 건설적인 생각이라 하셨습니다. 청년 단체가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당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란 사실을 항상 염두하고, 성당과 다른 단체에도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작은 일에서부터 참여하길 희망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모두들 청년 단체를 예쁘게 사랑으로 바라 보신다는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단체이름 "하람"에 대해...

하늘이 내리신 소중한 사람들 이라는 뜻으로 결정된 "하람/haram," 우리 새 단체 이름이 아랍어로 '금기'를 뜻하는 부정적인면이 있으며, 하람이라는 극악무도한 테러 단체가 있다는 정보에 (스펠링도 haram으로 같습니다) 지난 회합에서 이름을 바꾸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고: http://www.huffingtonpost.kr/2015/11/20/story_n_8614540.html , <https://ko.wikipedia.org/wiki/하람>)

짧은 기간안에 새단체를 시작하며 많은 결정을 하는중 이름의 다른 뜻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이름은 중요하니, 앞으로 기간을 충분히 갖고 (약 한달) 추천을 받으며 기도속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추천하실때 (직접/매체) 그 의미와 추천 이유를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정해질때까지 매주 공지는 제 개인 이메일로 발송 하겠습니다.

축 결혼 - 김광호 길베르또 형제님: 3월 5일 토요일

지난 몇년간 뜨락회의 핵심멤버로 봉사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광호 길베르또 형제님이 3월 5일 토요일 한국에서 백년가약을 맺으십니다. 축하 드립니다!! 축하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 회합중 메세지를 적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축하드릴 분들, 길베르또 형제님의 이메일은 kwang0204@gmail.com 입니다.

2월 생일 - 축하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Emoji

2월 15일 - 김정호 이나시오

2월 20일 - 김희원 글라라

2월 25일 - 박보라 올리아나

2월 28일 - 김지영 (예비자)

만남의 성경모임 (창세기 모임과 다릅니다.)

조 마오로 수녀님의 지도아래 진행될 "만남의 성경모임" 첫모임 일정입니다.

일시: 3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사제관 건너편 방

대상: 30대 이상 성경말씀 나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미혼남녀 (신자/비신자 포함).

첫 모임시 추후 모임 일시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있겠습니다.

사순절 전례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저녁 7시 20분부터, 그리고

주일 교중미사 전 10시 20분부터 '십자가의 길'을 봉헌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매 미사 30분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여 판공 성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아래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2016 회장단 - 전진영 베로니카, 이의천 베드로, 박보라 올리아나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 | www.oakcc.org